

반려견과 4만8,000km 도보여행한 남성

반려견과 함께 무려 7년 동안 4만8,000km를 걸어서 세계여행을 한 남성이 화제이다.

뉴저지 출신 톰 터치(33)가 세운 이 기록의 시작은 지난 2015년 4월 2일 그의 26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시작했다. 그가 남다른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17세 때 친구를 사고로 잃으면서다. 톰은 "그 일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며 뜻 깊게 살기 위해 세계일주를 하기로 결심했다." 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대학 재학 중에는 방학기간 동안 일을 해 2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행경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역 회사의 후원까지 얻어내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여행의 첫 단계인 뉴저지에서 파나마까지 걸던 도



중 텍사스 오스틴의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서베너를 여행의 동반자로 맞이했다. 뉴저지를 떠난 지 4개월 만이었다.

이후 그는 서베너와 함께 파나마, 콜롬비아, 칠레를 거쳐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후 항공편으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여러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를 걸었다. 톰은 도보 여행 중 하루 평균 29~38km씩, 총 4만8,000km, 6개 대륙 37개국을 걸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집으로 돌아왔다.

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행을 마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안도감" 이라면서 "이제 내 삶을 지배해왔던 것(친구의 죽음)을 뒤로 놓을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사진=theworldwalk

악어와 결혼식 올린 시장



지난 1일 멕시코 오악사카주 산페드로 우아멜룰라에서는 이색적인 결혼식이 열렸다. 이 도시의 시장과 악어가 부부의 연을 맺는 예식이었다.

사람과 동물의 결혼이었지만 예식은 어느 결혼식처럼 격식에 맞춰 진행됐다.

주민들은 면사포를 쓰고 식장에 등장한 신부 악어를 뜨겁게 환영하면서 시장과 악어의 행복을 기원했다.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는 키스를 해도 된다." 고 하자 시장은 악어에게 입을 맞췄다. 물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부 악어의 입은 꼼꼼히 묶여 있었다.

예식이 끝난 후 현장에서 바로 새로운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울긋불긋 화려한 원주민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꽃으로 만든 왕관까지 쓴 신부 악어는 하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감사인사를 했다.

사람과 악어의 결혼은 자연에게 풍요로움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의식으로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기 전부터 있던 원주민 사회의 전통이었다.

주민들은 "자연이 풍요로움을 베풀어야 강에는 고기가 넘치고, 땅엔 풍년이 깃든다." 면서 "결혼식에는 자연과 사람이 공동운명체라는 신앙이 바닥에 깔려 있다." 고 말했다.

민간이 치르던 사람과 악어의 결혼식은 1789년부터 공식 행사로 지정됐다. 시장이 주민들을 대표해 신랑으로 서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신부가 될 악어는 태어나자마자 선정돼 결혼식이 열릴 때까지 특별한 돌봄을 받으면서 자란다.

가르시아 시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화와 풍요로움이 넘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사진=twitter(24 Morelos)

'옆구리' 구멍난 채로 14시간 날아간 비행기

지난 1일 에미레이트항공의 에어버스 380-800 여객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호주로 향하기 위해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이륙한 지 45분 가량이 지났을 때, 기내에 있던 승무원과 승객들은 무언가 터지는 듯한 굉음을 들었고, 승무원은 이를 즉시 조종사에게 보고했다. 당시 조종사는 여객기의 이착륙시 사용하는 바퀴에 구멍이 났다고 판단했고, 도착지인 호주 브리즈번공항에 미리 연락해 긴급 서비스를 요청했다.



부로 집어넣는 기어 중 일부의 볼트가 풀린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여객기에 탔던 한 승객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가 났고, 바닥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객실 승무원

도 이를 들었지만, 중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은 "커다란 소리와 진동이 느껴져 정말 무서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가 재개됐고, 승무원들의 침착한 태도에 안심할 수 있었다." 고 전했다.

한편 에미레이트항공 측은 해당 여객기가 브리즈번 공항에서 정비를 받고 문제를 해결한 뒤 3일 저녁 다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사진=twitter(JacdecNew)

약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도착지에 무사히 착륙한 뒤, 승객과 승무원이 들었던 굉음은 바퀴의 구멍이 아닌 비행기 외부 패널 옆면에 생긴 구멍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브리즈번공항 엔지니어들은 여객기 왼쪽에서 커다란 구멍과 함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바퀴를 비행기 내

척추 디스크 통증에서 완전해방!!

풍부한 경험의 척추전문 의사와 최첨단 의료기가 만났습니다

30년간 척추디스크 및 좌골신경통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윤동준 척추신경병원에서는, 21세기가 낳은 혁신적인 최첨단 무중력 압력감소 치료기 DRX9000을 갖추고 90% 이상의 현저히 높은 완치율로 고통없는 치료방법으로 다양한 척추디스크 질환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 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어깨가 안들어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 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척추디스크 치료 30년 이상의 임상경험 최첨단 척추디스크 치료기가 함께 해 최고의 결과를 자부합니다!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교통사고 및 각종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요통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도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0년



윤동준 척추신경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CA 92840